

N세대 디지털 사진 문화에 관한 연구

-dcinside.com의 사례분석연구-

강 홍 규

중부대학교 예술영상학부

A study of N-generation digital photographic culture

Hong-Gyu Kang

Dpt. of Photography and Photographic image, Joong Bu University

E-mail : A@koreacontents.or.kr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사진을 중심으로 한 문화현상을 분석하고, 특히 디지털카메라 전문 인터넷 사이트 DCINSIDE.COM을 사례분석 하여 N세대들의 디지털카메라와 디지털사진문화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디지털문화의 핵심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디지털사진의 일상화다. 문자보다 훨씬 이해도가 빠르고 친근한 사진이 디지털 문화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화상통화에서도 디지털 사진은 음성과 함께 한 축을 담당한다. 문자보다는 영상에 익숙한 N세대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디지털 사진을 동반 시킨다. 이와 같이 최근에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문화는 디지털카메라와 디지털 사진의 발전으로 이미지를 새로운 소통수단으로 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디지털사진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우리의 기록 방식과 의사소통의 방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인식시켜준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올바른 디지털사진 문화의 발전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Abstract

In this study, I intend to analyze to cultural phenomenon centering around a digital photo. Especially, I consider digital camera and digital photo's culture of N-generation by studying a case of digital camera's internet site, DCINSIDE.COM. A digital photo in daily life is one of the remarkable phenomenon of digital culture. Photography that is faster to understand and more familiar than letter leads to digital culture. Digital photo takes charge of a group at display phone with sound. N generation who is familiar to image takes with a digital photo in every ways of communication. Recently our communication culture use a image to new communication through digital camera and development of digital photo. Digital photo deeply comes into our ordinary life when we never recognize in advance. And it let us recognize a lot of changes and communication. In this point of time, it demand that we must have a responsible attitude for development of digital photographic culture.

I. 서론

역사적으로 볼 때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생활방식과 새로운 기기를 만들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다. TV나 영화, 자동차와 비행기, 전화와 같은 신기기 들은 일상생활에 깊이 침투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왔고 인류의 생활을 변화시켜왔다. 현대사회에서도 . 컴퓨터와 인터넷, 핸드폰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많은 디지털기와 함께 디지털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디지털문화의 핵심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디지털사진의 일상화다. 문자보다 훨씬 이해도가 빠르고 친근한 사진이 디지털 문화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화상통화에서도 디지털 사진은 음성과 함께 한 축을 담당한다. 문자보다는 영상에 익숙한 N세대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디지털 사진을 동반시킨다.

근래 들어 더욱 작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갖춘 디지털카메라라는 이런 디지털사진 문화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요즘 길거리나 대학가에서는 디지털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다. 예전에 사진을 찍는 일은 어떤 일을 기념하거나 증명사진 찍을 때 최소한 나들이를 갔을 때 행하는 특수한 행위였다. 그러나 이제 이들 N세대들은 늘 디지털카메라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대화를 나누다가도 사진을 찍고 길을 걷다가도 아이쇼핑을 하다가도 사진을 아무런 부담 없이 찍는다. 사진은 일상생활에서 일상적인 일의 한 가지가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사진을 중심으로 한 문화현상을 분석하고자한다. 특히 디지털카메라 전문 인터넷 사이트 DCINSIDE.COM을 사례분석 하여 N세대들의 디지털카메라와 디지털사진문화를 고찰해본다.

연구를 위해서 먼저 디지털카메라의 발전과 디지털사진문화의 등장 배경, 디지털 사진문화의 현상을 먼저 분석하고자한다.

II. 디지털카메라와 디지털사진문화

1. 디지털 사진의 등장

디지털사진의 등장은 당연히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시작되었다. 1981년 일본의 소니사가 MAVICA라는 디지털카메라를 처음 시판한 이후로, 한동안 디지털카메라는 전문가

들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전문장비였다.¹⁾ 그러나 1990년대 이후로 기술이 발전되어, 보다 작고 저렴하며 다양한 첨단 기능을 갖춘 디지털카메라가 개발되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2002년에는 카메라를 내장한 휴대폰이 등장하여 디지털 카메라는 늘 지니고 다니는 일상용품이 되고 있다.

디지털사진문화가 확산되는 이유에는 디지털카메라의 기술적 발전과 가격의 저렴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 디지털카메라와 디지털사진은 필름사진이 갖지 못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디지털사진은 비용이 필름사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디지털카메라는 필름 걱정 없이 반복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실로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 디지털카메라를 확산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일 것이다.

둘째, 촬영 후 전송과 교환이 가능하다. 디지털 사진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어디로든지 누구에게나 전송이 가능하다. 사진을 단순히 혼자만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고 공감하며 나눌 수 있는 문화 테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다양한 형태로의 저장이 가능하다. 필름 사진은 보관 방법이 필름과 인화된 사진 두 가지가 있다 . 그러나 디지털 사진은 CD-ROM, 스마트카드, 기타 메모리 장치를 이용해 등 다양한 저장장치를 통해 보관 할 수 있다

넷째, 이미지의 창조가 무한하다. 과거에 사진의 수정은 일부 전문가들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디지털사진에서는 누구나 이미지의 수정이 가능하다. 인물 사진의 머리스타일, 배경 등을 자유자재로 변화할 수 있으며, 복제나 편집이 자유롭기 때문에 날씬한 몸매를 가질 수도 있고, 영화포스터 속의 주연배우가 될 수 있는 등의 즐거움이 있다. 이미지를 창조하면서 독특한 디지털사진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다.

또한 현상소에 가지 않고 사진을 볼 수 있다. 디지털 사진은 인화를 하지 않더라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진을 볼 수 있으며, 출력을 할 때에도 간단히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을 할 수 있다. 또한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낼 수도 있으며 앨범을 파일정리로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의 확산과 통신 수단의 발전은 디지털 사진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사진을 쉽게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 사진을 보내기위해서는 필름이 아닌 디지털카메라와 디지털사진이 필요하게 되었다. 2)

2. 디지털 사진문화

디카족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디지털카메라족(族)의 준말로, 늘 디지털카메라를 휴대하고 다니며 일상생활 속에서 찍은 사진을 인터넷 공간에 올리고 공유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이들은 길을 가다가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도 음식을 먹다가도 사진을 찍는다. 무엇보다도 필름값이 필요 없어 아무런 부담 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들은 사진을 바로 확인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진은 간단한 버튼 조작으로 삭제해버린다. 또한 사진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정이나 합성을 하고 본인의 취향과 개성에 따라 연출을 한다. 이렇게 찍는 처음 단계에서부터 독특한 디지털 사진문화가 형성된다. 그리고 자신의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고 전송함으로써 사진을 공유하는 2차적인 디지털사진문화가 만들어진다. 필름사진시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진을 불특정 다수가 함께 보고 사진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즐기는, 대중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즉, 인터넷과 연결된 디지털 사진이 공동체 문화 형성의 주요 매개체가 되어, 디지털 기술과 일상이 만나는 점점에 위치하는 것이다.

디지털 문화는 정보의 개인적 통제와 개인의 고립성, 네트워크를 통한 적극적인 교류라는 쌍방향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디지털 사진을 통해서 디지털 문화의 특성이 구현되고 있다.

보다 획기적인 디지털사진문화의 특성은 인류역사상 문자 중심의 기록문화가 이미지 중심의 기록문화로 대체되는 현상이다. 과거 기록의 대부분은 문자로 이루어졌다. 문자로 기록되고 소통되었다. 이제 그 기능을 보다 이해가 빠르고 쉬운 이미지가 대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디지털 사진이 있는 것이다.

III. DCINSIDE.COM 사례 연구

1. DCINSIDE.COM

DCINSIDE.COM은 국내에서 디카족들이 가장 많이 찾는 디지털사진 전문 사이트로 디지털카메라 인사이트(www.dcinside.com)로 줄여서 디시인사이드로 부르고 있다. 디지털카메라와 디지털사진 관련 정보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컨텐츠사이트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디지털인사이트가 운영하는 회사이기도 하다. 아햏햏라는 유행어를 탄생시키기도 했으며, 월드컵, 여중생추모 촛불시위, 2003년 대통령선거 등 사회의 중요한 순간을 사진으로 올려 더

욱 유명해졌다. 디시인사이드는 디지털 카메라 정보 외에도 브랜드마다 사용자 동호회가 있으며 음식, 여행, 엽기, 합성 등의 갤러리가 있어 사용자의 사진솜씨는 물론 주변에 재미있는 간판을 비롯하여 안내문 등은 엽기 갤러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인터넷에 볼 수 있는 합성 사진의 대부분은 이곳 디시인사이드의 합성 갤러리에서 나온 것이며, 이 밖에 언어에서도 방법한다(보복한다), 면식새운다(라면을 먹는다) 등의 독특한 언어를 구사한다. 또한 갤러리에 올린 사진에는 유효, 무효를 가리거나 리플을 제일 먼저 하는 1등 놀이도 여기에서 탄생되었다. 디시인사이드는 단순한 카메라 정보 사이트가 아닌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냈다. 본 연구에서는 디시인사이드를 중심으로 디지털 사진문화를 분석하고자한다.

2. 디시인사이드의 디지털사진문화 분석

1) 일상생활의 기록으로서 디지털사진

디지털 카메라는 일상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온갖 삶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여중생 사망사고로 인한 시위 때도 시위현장을 찍은 수많은 사진이 전파되었다. 2002한일 월드컵 때와 대통령선거 때에도 수많은 사진이 게재되었다. 누구나 기자가 됐던 셈이다. 굳이 무거운 주제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소소한 일상생활에서 디지털사진과 함께 하고 있다. 얼마 전 TV에서 하는 광고 중에 부인이 찍어준 디지털 사진을 보며 쇼핑하는 광고가 있었다. 디지털 사진이 일상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사소한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하면서, 젊은이들은 느끼고 생각한 모든 것을 글 대신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비 오는 날의 느낌은 비 사진 한 장과 '비 온다. 구리다'는 식의 한마디로 압축한다. '디시인사이드'에 '점심식사로 먹은 낙지' '치과에서 뻥 사랑나' 등 도무지 알 수 없는 사진들이 올라오는 것도 일상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에게 디지털카메라는 단순히 사진만 찍는 도구가 아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인 것이다. 대구 지하철 참사 순간을 촬영한 사진도 디지털카메라를 늘 휴대하고 다니는 디카족이 찍은 것이다. 디지털카메라의 순간포착과 즉시성은 일종의 연장된 눈 역할을 한다. 심지어 요즘 대학생들은 대학 강의실의 칠판을 노트하는 대신 간단히 사진으로 해결한

다. 모든 것이 촬영대상이다.

디지인사이드에서 사진을 올려놓는 갤러리는 아기사진, 와이프사진, 여자친구사진, 강아지와 고양이사진, 음식, 도서, 패션, 음반, 집 사진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구성되어있다. 디지털 사진이 일상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코드로 되어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디지털카메라가 생활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는 증거는 디지털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의 보급에도 있다. 성인인구의 대부분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현 상황에서 디지털 카메라가 장착된 핸드폰의 등장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다닌다는 말이다. 이제는 별다른 장비 없이 디지털 사진을 찍게 되었고 그것을 보고 전송한다. 모 핸드폰 광고에서 젊은 남녀가 핸드폰으로 상대방의 사진을 찍고 사귀게 된다는 내용은 디지털 사진이 생활의 한 부분임을 말해준다.

2) 의사소통으로서 디지털사진

디지인사이드에 올라온 디지털사진은 댓글(답글)을 통해서 의사소통의 형태로 자리 잡는다. 각 사이트의 갤러리마다 올려져 있는 사진에는 댓글이 달린다. '대단하오' 같은 격려나 'ㅋㅋㅋ...' 같이 짧은 웃음 등이다. 한 사진 당 수십 개의 댓글은 기본이다. 댓글은 익명의 사람들이 사진으로 표현된 이야기에 대한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인기를 끌듯이, 사진도 재미있고 엽기적인 것이 주목을 끈다.

일반적으로 사진이나 그림 등은 사진작가나 화가 등 전문가들이 만들어왔고, 일반인들은 수용하기만 하였다. 하지만 디지인사이드에서 일반인들은 단순한 수용자에서 능동적인 생산자로 바뀌어 진다. 디지털 카메라 사용자들은 이미지의 구체적인 생산자이길 원하고, 이미지의 생산 과정이 즐거운 놀이이기를 욕망하며, 다른 사람과 이미지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소통의 관계들을 만들고자 한다.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즐겁게 고민한다고 보면 그다지 틀리지 않을 것이다.⁴⁾

또한 디지털사진을 통해서 멀리 외국에 있는 가족과 보다 친근하게 서로를 확인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상대방과 통화하는 쌍방향성이 내포되어있는 디지털문화의 한 표상이다.

3) 문화의 공유매체로서 디지털 사진

디지털사진은 사진을 찍어서 혼자만 보는 사진이 아니다. 디

지탈 사진은 컴퓨터에 저장한 후 타인에게 곧 바로 전송할 수 있다. 휴대폰은 찍는 순간 바로 사진을 전송 할 수 있다.

자신의 관심 분야를 사진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후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유문화로서 디지털 사진이 중요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디지인사이드에는 일상적 풍경을 올리는 갤러리에서부터 애인 사진을 올리고 품평회를 여는 갤러리까지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드러내는 공간이 있다. 이곳에서는 수많은 사진이 교환되며 회원 간 품평회를 거친다. 이 사이트에서 열광적인 지지를 얻은 사진들은 인터넷을 통해 삼시간에 퍼지며 수많은 네티즌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디지털사진문화가 반드시 긍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로 찍은 연예인의 사생활 등이 인터넷에 급속도로 퍼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여성연예인의 포

르노사진, 몰래 찍은 사진, 화상을 통해서 자신의 알몸을 돈을 받고 보여주는 사진 등이 보다 쉽게 유통되어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연예인들이 집에서 모여 있는 사진의 해킹을 당해 유포된 경우도 있었다.

4) 사라지는 필름 사진문화

아직도 필름카메라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사진을 찍고 현상하고 인화하고 앨범에 정리하는 필름 사진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필름 사진의 특성중 하나는 기다림일 것이다. 사진을 찍고 현상, 인화하는 길고 고된 작업을 거쳐 자신이 찍은 사진을 기다리는 필름사진문화는 그 자체가 매력적인 장점일 수 있고 단점일 수 있다. 이제는 사진을 찍은 후 즉석에서 확인하고 컴퓨터에 저장한다. 인화를 위해서 현상소에도 굳이 갈 필요가 없다.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사이버공간에 혹은 CD롬에 보관하면 되는 것이다. 앨범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에 따라 필름을 현상하고 인화하는 기존 사진관도 쇠퇴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인터넷에는 20여개에 달하는 디지털 사진 전문 현상소가 있다. 이들에게 인터넷으로 사진을 보내면 현상을 해서 다시 보내준다.

하지만 아무리 디지털카메라가 인기라도 기존 필름 카메라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없을 전망이다. CD가 나온 지 20년이 됐지만 여전히 LP 음반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디지털카메라가 여러 가지 장점은 많지만 특히 전문 사진사들은 여전히 필름 카메라를 선호하고 있다. 사진 품질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아무리 예

전 LP 음반의 음질이 뛰어나다고 주장해도 CD 음반이 표준으로 자리 잡았듯이, 디지털카메라가 사진시장을 잠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컴퓨터 등 다른 디지털 기기와 호환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업계는 올해를 기점으로 디지털카메라 판매가 기존 필름 카메라를 앞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을 정도다. 일본에서는 이미 디지털카메라가 시장을 장악했다. 지난해 일본의 디지털카메라 판매는 665만대를 기록해 필름 카메라 판매량인 220만대를 훨씬 앞질렀다. 일부 카메라 업체들은 아예 필름 카메라 생산을 중단했다. 니혼게이아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사무기기 생산업체인 리코는 내년 3월까지 필름식 카메라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5]}

국내의 경우는 인터넷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디지털카메라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디지털카메라 시장은 2002년에 전년도에 비하여, 183.2% 성장하였고, 2003년에는 전년대비 25.6%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6]}

5) 사진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

디지털 사진문화의 이러한 발전과 이용의 이면에는 또 다른 사진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사진을 진실로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문화다. 지금까지 사진은 진실 그 자체였다. 사진은 당시의 사실을 그대로 재현해 보관하는 수단이었다. 사진은 역사이며, 모든 사건의 증거물이었다.

지금 지적하고자하는 것은 현재의 디지털 기술로 볼 때 사진의 조작이 매우 쉽다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디지털 카메라와 디지털 사진을 만들어냈지만, 또한 발달된 디지털 기술과 프로그램이 디지털 사진의 조작을 가능케 하고 있다. 사진의 합성, 수정, 삭제 등 변형기법들이 자유자재로 쓰이면서 순수사진과는 거리가 먼 허구의 이미지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저작된 이미지들은 빠르고 손쉽게 통신망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낸 이미지는 사진보다는 전통적인 회화양식과 아날로그 사진의 특성이 결합된 일종의 시뮬레이션이다. 이런 디지털 이미지의 출현은 개성의 발현과 상상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환영 받을 만하며 예술이나 상업광고에서 그 활용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창출된 이미지가 진실을 왜곡하여 악용될 경우 엉뚱한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다. 이미지 조작 수법은 점점 더 치밀해져 진실과 거짓의 경계는 더욱 흐려지고 있다.

디지털로 찍은 사진이 범죄 신고나 정황의 증거로 활용될

것인지는 보다 세월이 흘러야 할 것이다. 아직도 필름사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한 동안은 그럴 것이다. 그러나 정말 먼 훗날 필름 카메라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면, 사진의 진위 여부 문제는 큰 화두가 될 것이다.

IV. 결론

디지털 사진문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록과 의사소통의 방법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자와 음성언어에 주로 의존해서 소통하던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디지털카메라와 디지털 사진의 발전으로 이미지를 새로운 소통 수단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낸 문화가 이전에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디지털시대의 신문화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디시인사이드라는 디지털사진 전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발견되는 현상을 분석하였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디지털사진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우리의 기록 방식과 의사소통의 방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았다. 올바른 디지털사진 문화의 발전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참 고 문 헌

- 1] http://www.dimclub.com/digital_camera_edu.asp
- 2] 디지털사진문화에 관한연구, 중부대학교 예술체육문화연구소, P79, 2002년 11월
- 3] <http://www.dcinside.com/>
- 4] 김동식, 디지털시대의 디카문화, 주간한국, 2003.4
- 5] 매일경제 2003.04.29
- 6] Gartner Dataquest, 2003. 01
- 7] 권수미, 디지털 언론. 디지털 포토그래피, 나남출판사, p97, 2000,